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한 중국 내 평가와 대응

KIEP 북경사무소(mspark@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중국정부의 평가와 대응
2. 중국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 평가
3. 시사점

주요 내용

- 중국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을 존중하며, 브렉시트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다양한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보임.
- 중국 내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위안화 절하추세가 지속되고, 장기적으로 위안화 국제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국에 대한 EU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함.
 - [거시경제] 중국의 수출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임.
 - [외환시장] 단기적으로 위안화의 절하 추세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자금의 해외유출을 우려함.
 - [위안화 국제화] 브렉시트 이후 위안화 국제화센터로서 런던의 위상 약화로 대체 지역의 육성이 필요함.
 - [대외경제] EU로부터의 통상압력도 강화될 것이나, 일대일로 연선 국가와의 협력 확대와 중국기업의 유럽 기업에 대한 M&A 기회로 활용할 예정.
- 종합적으로 브렉시트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EU와 유로화의 위상 약화는 중국과 위안화의 상대적 위상을 강화시킴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중·영 간 협력 강화, 영국과 EU의 영향력 축소를 이용한 협상에서 중국의 협상력 강화, 영국과 유럽 자산가치 하락을 이용한 영국 및 유럽 기업에 대한 M&A 확대, 유로화의 지위 하락을 이용한 위안화 국제화 추진 등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평가

1. 중국정부의 평가와 대응

- 중국정부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지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다양한 조치와 함께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간다는 입장을 보임.
- 리커창 총리는 브렉시트로 인한 세계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인 금융시장 여건 조성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공동 대응해야 함.
 - 아울러 유럽은 중국과 중요한 협력관계에 있으며, 중국·유럽과 중국·영국 관계 모두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 중국 외교부는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영국 및 EU와의 장기적인 전략적 관계를 유지해갈 것임을 밝힘.
 - 중국 외교부는 화춘잉 대변인을 통해 영국 브렉시트 결정에 대해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대한 영국의 선택을 존중하며, 영국과 EU 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번영과 안정을 이루기를 희망한다”는 내용과 함께 중국은 영국 및 EU와 장기적이고 전략적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중국 인민은행은 브렉시트가 중국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대응책을 준비 중임.
 - 금융시장 반응을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양한 통화정책도구 활용 및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 안정적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을 도모하고, 주요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함.
 - 동시에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서는 균형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이며, 환율결정에 있어 시장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2. 중국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 평가

가. [수출 및 거시경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 쉬샤오스(徐绍史) NDRC 주임은 브렉시트가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투자, 무역, 자본시장 등의 관점에서 영국의 브렉시트는 중국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그러나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맹목적인 해외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 영국은 EU 내 중국의 2대 무역대상국으로, 2015년 중국 무역액의 2.0%, 수출의 2.5%, 수입의 1.1%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EU는 중국의 최대 교역대상 지역으로 2015년 대EU 수출은 3,564억 달러로 중국 수출의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EU 수입은 2,089억 달러로 중국 수입의 12.5%를 차지하고 있음.
- 중국의 대영국 수출은 597억 달러로 대EU 수출의 16.7%를 차지(독일에 이어 2위)하고 있으며, 영국으로부터 수입은 189억 달러로 대EU 수입의 9.0%를 차지함.

표 1. 중국의 대EU 및 대영국 교역 규모

(단위: 억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대세계 (A)	대EU (B)	대영국 (C)	비중 (C/A, %)	대세계 (A)	대EU (B)	대영국 (C)	비중 (C/A, %)
2010	15,784	3,113	388	2.5	13,939	1,685	113	0.8
2011	18,993	3,561	441	2.3	17,414	2,112	146	0.8
2012	20,501	3,341	463	2.3	18,173	2,125	168	0.9
2013	22,107	3,383	510	2.3	19,493	2,201	191	1.0
2014	23,432	3,710	572	2.4	19,631	2,444	238	1.2
2015	22,824	3,564	597	2.6	16,808	2,094	189	1.1
2016.1~5 (증감율,%)	8,180 (-7.1)	1,325 (-4.0)	211 (-3.2)	2.6	5,967 (-10.1)	825 (-3.3)	75 (-3.8)	1.3

자료: CEIC.

■ 영국은 EU 내 중국의 2대 무역대상국인 동시에 중국기업의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국의 하나로, 브렉시트는 중국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장젠펑, NDRC 대외경제연구소 주임).

- 파운드와 유로 약세 전환,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로경기의 침체로 인해 중국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그러나 미국으로의 자본유입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압력이 줄어들고, 전 세계의 긴축완화 공조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충격이 적을 것임.

■ 브렉시트가 중국의 수출에 미칠 영향은 긍정적 면과 부정적 면이 모두 있으나, 종합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俞平康, 平康华泰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 중기적으로 위안화의 대유로화 및 파운드화 강세 전환으로 최대 수출시장인 EU에 대한 수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위안화의 대미달러 약세는 중국 수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종합적으로 브렉시트가 중국의 수출에는 소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EU에서 미국으로 중국의 수출시장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나. [외환시장] 단기적으로 위안화 절하 및 자본유출 가능성

■ 현재까지 영국의 브렉시트가 중국 외환 및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 브렉시트 이후 중국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28일 이후 하락세로 전환됨.
- o 위안화의 대미달러 고시환율은 6월 23일 6.5658위안에서 27일에는 6.6375 위안으로 1.09% 절하되었으나 6월 28일 이후 절상세로 전환되었고, 역외환율(CNH) 역시 6월 23일 6.5680위안에서 6월 28일 6.6783위안까지 절하된 이후 절상세로 전환됨.
- 브렉시트의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 역시 제한적임. 6월 24일 상해심천300지수는 전일대비 1.29% 하락한 이후 6월 25일 이후 상승세 유지)

그림 1. 위안화 대미달러 환율 추이

(단위: 위안/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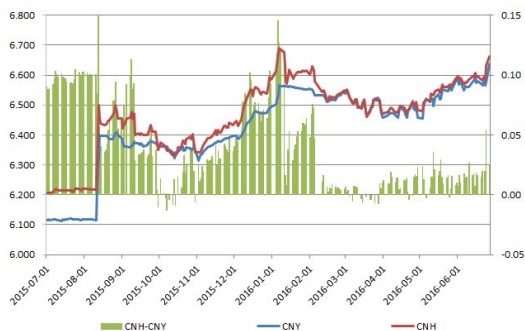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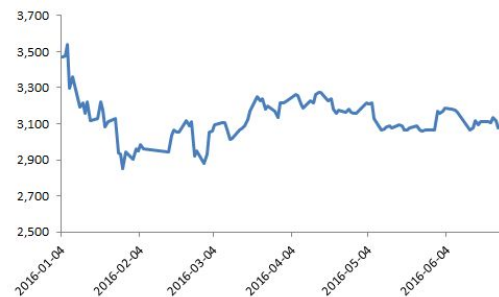


그림 2. 상해심천300지수



- 선진국 통화 변동성 확대(파운드화·유로화 가치 급락, 엔화가치 급등),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개도국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중국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및 위안화 절하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1) 6월 24일 주요 증시 변동: 상해종합 -1.30%, 항생지수 -2.92%, 니케이225지수 -7.92%, KOSPI -3.09%, 독일 DAX -10.05%, 프랑스 CAC40지수 -10.96%, 다우존스 -3.64% 등.

■ 영국의 브렉시트가 단기적으로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위안화 절하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음(张瑜, 민생은행연구원).

- 8.11 환율제도 개혁 이후 위안화의 절하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2015년 8월 11일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약세를 유지하던 위안화 가치는 2월 중순부터 강세로 전환, 4월 중순 이후 다시 약세로 전환됨.

- 브렉시트 이후 달러 및 엔화 강세, 유로화 약세로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브렉시트 이후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20% 절하되고, 미달러가 12.4% 절상될 경우 위안화의 '중간가+CFETS²⁾'를 감안할 경우 중간가는 3.55% 절하될 것으로 전망(민생증권)

○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10% 절하되고, 달러화 지수가 99 상승할 경우 위안화/달러화 기준환율은 6.74 까지 절하 예상

■ 미달러 강세에 따른 위안화의 약세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자본유출로 이어지고, 국내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俞平康, 平康华泰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 브렉시트가 중국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브렉시트가 위안화의 대폭적인 절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강한 불안이 확산될 경우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음.

- 다만 미국 금리인상의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님. 그러나 달러화 강세는 위안화의 자본도피를 가속화시킬 수 있음(골드만삭스는 1~5월 중 1,750억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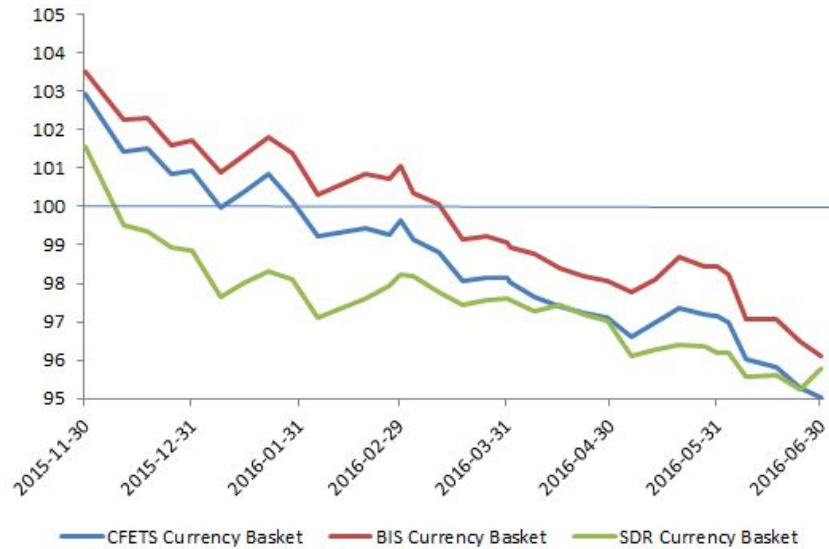
■ 위안화 환율이 주로 국내 경제요인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관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여타 개도국에 비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함(白明, 상무부 국제시장연구부 부주임).

- 유로화와 파운드 약세로 미달러와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서 CFETS가 안정됨으로써 위안화 환율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며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도 존재함.

- 중국 위안화의 바스켓 환율지수는 100 이하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고평가되어 있어 향후 위안화의 절하가 이어질 것이나, 지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대폭적인 절하 가능성은 크지 않음.

2) CFETS(Chinese Foreign Exchange Trading System): 중국 내 은행간 외환거래 중개, 기준환율 고시, 외환거래 시스템 정비 등을 담당하는 인민은행 산하기관임.

그림 3. 위안화 바스켓 환율지수(2014.12=100)



다.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 국제화 중심의 조정 필요

1) 위안화 국제화에서 영국의 위상

■ 최근 중국은 런던을 대유럽 위안화 국제화 중심으로 만들어간다는 전략 아래 수년간 중·영 간 금융분야 협력을 강화해왔음.

- 특히 2015년10월 시진핑의 영국 방문 시 통화스와프 확대, 영국에 대한 RQFII 한도 확대,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 발행, 위안화 채권 발행, 위안화 청산은행 선정, 중국계 은행의 분행 설립 등 다양한 금융협력을 합의함.

표 2. 런던의 위안화 역외허브 추진 일지

일시	주요 내용
2011년 9월	- 제4차 중국·영국 경제금융담화에서 런던의 역외 위안화 사업 개발협력 합의
2011년 12월	- 런던 위안화 비즈니스센터 이니셔티브 수립
2012년 1월	- 민간 주도 홍콩·런던 포럼 수립
2012년 4월	- 런던 위안화 비즈니스센터 이니셔티브 출범 - HSBC 런던에서 첫 위안화 채권 발행
2012년 5월	- 제1회 홍콩·런던 위안화 포럼 개최

표 2. 계속

일시	주요 내용
2013년 6월	- 영란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2,000억 위안(200억 파운드) 통화스와프 체결
2013년 10월	- 영국 800억 위안 RQFII 획득 - 파운드화 위안화 직거래 발표 - 영국에 중국 은행지점 허용
2013년 11월	- 중국 공상은행(ICBC) 런던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2014년 3월	- 국제기구 IFC 런던에서 위안화 채권 발행
2014년 6월	- 중국건설은행(런던)이 영국의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됨 - 중국 외환거래센터에서 영국 파운드 직거래 개시
2014년 10월	- 영국, 서방국가로는 최초로 위안화 표시 국채 발행
2015년 10월	- 영란은행과 중국 인민은행 통화스와프 3,500억 위안(350억 파운드)으로 확대 - 중국 인민은행, 런던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50억 위안) 발행

자료: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KIEP 2015).

■ 런던이 홍콩에 이어 양대 역외 위안화 교역센터로 부상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런던의 일평균 위안화 거래액은 600여 억 달러로 홍콩의 900여 억 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함.

- 런던은 제2의 위안화 역외 결제센터로서 역외 위안화 청산결제의 6.3%를 차지하고 있음.

※ 2016년 4월 역외 위안화 청산 결제 비중: 홍콩 72.5%, 영국 6.3%, 싱가포르 4.6%)

- 런던은 위안화 채권 발행시장의 하나로, 2015년 중국 재정부의 런던에서 인민폐 국채(30억 위안)를 발행하였으며, 영국정부가 런던에서 30억 위안의 위안화 주권채권을 발행하고, 중국 인민은행이 런던에서 50억 위안 인민폐의 중앙은행어음을 발행함.

2)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브렉시트의 영향 평가

■ 중국의 전문가들은 브렉시트가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가 공존한다는 입장을 보임.

- 위안화 국제화 측면에서 런던이 홍콩 다음가는 위안화 역외거래 중심지로 부상하는 등 영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왔으나 유럽 금융시장에서 런던의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국태군안증권).

■ 브렉시트로 국제금융센터로서 런던의 위상이 약화되면서 위안화 국제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현재 영국은 위안화 국제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브렉시트는 중장기적으로 위

안화의 국제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丁一凡, DRC 세계발전연구소 부소장).

- 최근 수년간 중국·영국 간에는 금융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안화 국제화 과정에 영국의 기여가 크나, 국제금융 중심으로서 런던의 위상이 도전을 받게 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소 유럽연구소장).

■ 브렉시트가 위안화의 국제화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국제경제에 있어 중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금융분야의 자유화 수준을 더욱 제고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장젠핑, NDRC 대외경제연구소 주임).
- 브렉시트로 파운드와 유로화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대신에 위안화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위안화 국제화 추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음.
-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국제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자본유출 압력도 완화될 것임.

■ 유럽 내 위안화 국제화 중심지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됨.

-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을 통한 위안화의 EU 시장 확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전망에 따라 위안화 중심지가 파리, 프랑크푸르트, 룩셈부르크 등으로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으로 교역과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동유럽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프랑크푸르트와 룩셈부르크를 위안화 국제화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

라. [대외경제 관계] 중영관계 강화, 대중 통상압력 강화, 중국 위상 강화

■ 브렉시트 이후 EU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온 영국과의 관계는 더욱 밀착될 것이나, 기타 EU 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지면서 중국과 영국의 양자간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것임(李稻葵, 청화대 중국과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
- 영국은 유럽에서 적극적인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국가로, 중국과의 무역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영 간 무역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향후 중·영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임.
- 그동안 중·EU 자유무역협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영국의 브렉시트로 중국과 EU 간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으나, 중국·영국 간 자유무역협정(China-UK FTA) 체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李慧勇, 신은만국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

※ 츠푸린(迟福林) 중국(해남)발전연구원장은 2020년까지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EU FTA를 체결할 것으로 주장함(2016. 6. 16).

※ EU위원회에서 통과된 「EU 대중국 신전략 요소(欧盟对华新战略要素, The European Union to China new strategic elements)」 연합 문건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 언급(2016. 6. 22)

■ 브렉시트 이후 중국은 EU의 보호주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나, 유럽과의 통상현안 해결에 있어 중국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영국시장을 얻게 될 것이나, EU의 관문으로서 영국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EU의 보호주의³⁾에 직면하게 될 것임(崔洪建,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유럽연구소 소장).
- 유로 경제의 위축으로 유럽과의 통상현안(시장경제 지위 및 기타 무역제재 등) 협상에 있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
- EU 국가 중 영국 등 북유럽 국가들은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려는 입장인 반면, 프랑스 등은 반대하고 있어 독일이 키를 쥐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대한 반대 결의안 채택함(5. 12).

마. [해외투자] 중국기업 해외M&A 확대 기회

■ 브렉시트는 중국기업의 유럽진출 창구로, 영국에 대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최근 수년간 영국은 중국기업의 유럽 본부 및 유럽 진출의 도약판으로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을 통한 유럽시장 진입 코스트가 높아지면서 그 역할 수행이 어려워질 것임. (장젠핑, NDRC 대외경제연구소 주임)
- 브렉시트로 국제금융 중심으로서 런던의 위상 하락, 영국의 외환보유고 감소, 영국의 재정 부담, 영국 파운드화 표시 자산의 평가손 발생 등으로 영국 내 중국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 그러나 중국기업의 영국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과 금융기업의 하이테크 기업 M&A형 투자로써 영국 본

3) EU위원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EU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발동한 반덤핑조치는 67건이었으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52건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임(EU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금액에서 AD로 영향을 받는 품목은 138%에 해당).

4) 2016년 4월 말 현재 중국의 영국에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136.6억 달러이고, 2015년 말 현재 중국기업의 영국계 기업에 대한 M&A(주식 참여 포함) 규모는 4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현재 영국에 설립된 중국기업은 500개 시를 넘어섬(상무부 통계, 國際商報, 2016. 6. 29).

토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브렉시트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李稻葵, 청화대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

■ 중국이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투자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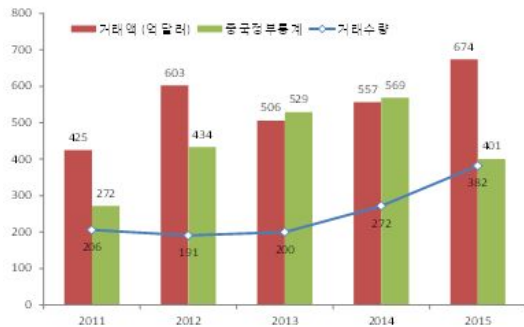
- 중국기업은 금융, 부동산, 통신, 자동차, 운송, 석유화학, 매체, 의류, 의약 분야에서 영국기업을 M&A 함.
-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 프로젝트에서 차질 예상(CRRC 영국지사 당바오(丁彪) 총경리)
 - o 영국에 고속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CRRC社는 브렉시트에 따라 파운드 하락, 경기침체 및 영국 정부의 협조 어려움 등이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완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함(第一財經日報 2016. 6. 24 보도).
 - ※ CRRC는 2015년 5월 영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같은 해 10월(시 주석 訪英) 영국의 제2고속철도 프로젝트에 500억 파운드를 투자하기로 합의함.
- 중국 부동산 그룹이 영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에 따른 파운드화 평가절하와 경기둔화로 관련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완다(萬達)그룹)

■ 중국의 일대일로, 주출거 등 글로벌화 전략의 적극적 추진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됨.

- 영국의 브렉시트는 “탈글로벌화”의 반영이라고 평가하고, EU의 영향력 축소, 유로화 약세, 세계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져 중국경제에는 위협과 기회가 공존함(曹紅輝, 국가개발은행연구원 부원장).
- o 특히 유로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위한 더 큰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영국과 FTA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도 커졌다고 평가함.
- o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중국의 글로벌화 및 해외투자(走出去)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대일로를 통한 지역경제 통합도 지속해나가야 함.
- 브렉시트는 유럽기업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킬 것이며, 이를 이용한 중국기업의 해외 M&A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邓海清, 九州证券 수석이코노미스트).
- o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15년 중국 해외 M&A 규모는 1,060억 달러에 달하며, 2016년에는 중국 해외 M&A 규모가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⁵⁾
- 영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중국기업의 유럽 진출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및 기타 유럽 국가로 다원화되는 계기가 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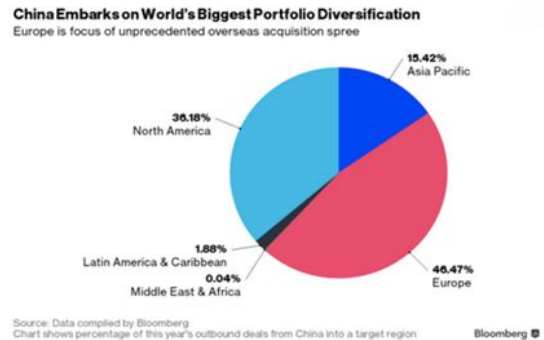
5) Thomson Reuters, 2016년 1/4분기 중국의 해외 M&A 규모는 1,130억 달러로, 2014년 전체 규모(1,210억 달러) 초과.

그림 4. 중국의 해외 M&A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21世紀經濟報道(2016.2.29) 재인용.

그림 5. 중국의 해외 M&A 대상 지역



3. 시사점

■ 브렉시트가 중국 거시경제, 외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브렉시트가 중국의 수출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위안화 환율 변동성 확대와 중국의 자금유출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브렉시트가 한·중 경제협력에 미칠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세계경기 및 교역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대한민국 통상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브렉시트 이후 세계경기 둔화로 중국의 수출이 영향을 받을 경우 한국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대중국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EU의 위상 하락으로 글로벌 경제이슈에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되고,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중국의 일대일로 주변국과의 협력 확대 등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브렉시트로 영국과의 FTA 추진 가능성, 유럽 내 위안화 국제화 중심지의 조정 가능성, 동유럽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등 중국의 대EU 협력전략의 조정 가능성이 큼.
- 브렉시트는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 특히 브렉시트 이후 EU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중국·EU 간

통상마찰이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중국기업의 국제화 추진, 중국 장비의 수출 촉진, 자원과 기술 확보, 통상압력의 회피 등 다양한 목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이후 EU의 통상압력을 회피하는 동시에 유럽기업의 자산가치 하락을 이용한 중국기업의 M&A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KIEP**

[참고자료]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2015. KIEP.

『英国脱欧对中国的启示: 需直面去全球化大潮』 . 2016. 『第一财经日报』 . (6月27日)

『欧洲的黑天鹅会成中国白天鹅吗: 长远看非坏事』 . 『第一财经日报』 . (6月27日)

『中英经贸合作感受脱累』 . 『國際商報』 . (6月27日)

자료 정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양평섭(psyang@kiep.go.kr)